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기도는 길게 찬양은 뜨겁게
- ◎ **당회:** 1월 정기 당회가 3시 계수실에서 있습니다.
- ◎ **모임:** 예배 후 각 공동체장, 인도자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2시 40분 까지).
- ◎ **기도회:** 2월 첫날 월삭기도회가 오는 토요일(2월1일) 새벽 5시 50분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 **알림:** 2014년 달력, 말씀카드 및 교회 요람을 받지 못한 성도나 더 필요한 성도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성경공부:** 기초 성경공부와 제직(항존직)을 위한 성경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작합니다.
 - 1) 제직: 2월 11일(매주 화) 오후 7시15분, 장소: 계수실, 기간 12주
 - 2) 기초: 2월 14일(매주 금) 오후 7시 장소: 계수실, 기간 12주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 **협조:** 오클랜드 교육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인 복지에 관한 프로젝트를 위한 설문 조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월 16일 오후 2시 15분 장소: 친교실 및 중고등부실 주관: Jenny Lee Vaydich 및 조교
- ◎ **예고:**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신임 임원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 각 선교회에서는 올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 청년부 주관 금요기도회에 저녁을 준비해주신 성도, 오늘 점심 식사로 섬겨주신 주방 봉사부에 감사드립니다.

교우소식

- ◎ **소천:** 한상순 집사(최현철 집사) 친정 아버지가 지난 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밀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Rome 12:15

2014년 1월 26일 16권 4호



목회자 컬럼

오병이어

추운 겨울날, 직장을 잃은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구걸을 나섰습니다. 한 고급 식당 앞에서 한 쌍의 부부에게 동정을 구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소.” 통명스럽게 쏘아 붙이는 남편과는 달리 부인이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모른척하고 우리만 따뜻한 저 안에 들어가 식사하기가 영 내키지 않네요” 하면서 “여기 10달러가 있어요. 음식을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당신이 직장을 얻도록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은 “고맙습니다. 부인은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부인이 “당신은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떡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10달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5달러 만 빵을 사고 5달러는 남겨 놓은 체 산 빵을 먹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사람을 부러운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겨놓은 5달러로 노인에게 빵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빵을 조금 맛보더니 나머지 모두를 종이에 싸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드시려고 싸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건너편 있는 신문팔이 아이에게 나누어 주려고요” 두 사람은 빵을 가지고 아이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 잃은 개 한마리가 다가 왔습니다. 그 아이는 빵을 떼어 개에게 주었습니다. 빵을 모두 먹고 난 후 아이는 기뻐하며 신문을 팔러 나갔고 노인도 일거리를 찾으러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선은 길 잃은 개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마침 개의 목에 주소가 적혀 있어서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었고 주인은 고마와 하며 “개를 찾아준 댓가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보아하니 일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처럼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서 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일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 사람은 그 여인의 작은 선물이 이토록 큰 기쁨을 가져옴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 보다 베풀 때 더 큰 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함께 울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창립 1999/07/14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34:1-3
개 회 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 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 성 시 교 독	15. 시편 27편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대 표 기 도	김철재 집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20:25-38
찬양대 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고별 설교 2/이태한목사
찬 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저녁 7시 30분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강동호 집사
성 경	요나서 1:1-3
설 교	여호와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이태한목사
합 심 기 도	인도자
광 고	인도자
찬 송	191. 내가 매일 기쁘게
주 기 도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정훈 형제

2월 교회알기

제작회: 2월 9일(주일)
전도주일: 2월 23일(주일)
공동체 주간 수요예배: 2월 26일(수요일)

2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경덕현/김인희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재란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정옥자 권사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1월 29일 수요: 이규임 권사
1월 29일 애찬: 한상순 집사
2월 9일 주일: 최광암 집사
2월 9일 청년부: 권준현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도록.
2.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 비자 문제등으로 힘들어 하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형통함이 있도록.
3.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성령충만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도록.

1월 새벽기도회 본문

10: 히 6:1~12 성숙과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 24: 히 11:8~16 믿음은 암담한 현실에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17: 히 9:11~22 죄 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 흘림 31: 히 13:18~25 모든 것 위에 기도와 축복을

선교와 증보기도

이번 주는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두 선교사님은 56년생 동갑으로 서울에서 시무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6년 전부터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서남쪽 180키로 떨어져있는 동탐성 탄빈군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보건 및 주택보급과, 구제사역, 교육사역등, 총체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기초보건은 의료사역, 치과 치료 등을 시작으로 점차 진행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짓기를 2012년도 27채를 시작으로 2013년 50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동탐성 탄빈군에 있는 안풍지역은 일년에 2-3개월은 물이 차있는 지역이어서 집을 지어도 높이 지어야하고 또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조건 이기에 다른 지역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2013년도 구제사역으로 생명의 쌀 나누기 8회, 200가정에 16톤의 쌀과 생필품 등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하고 있으며, 고아원사역은 매달 주식과 간식을 도우며 때로는 자전거, 세탁기등 필요를 채워 주기도 합니다. 교육사역으로는 안풍 중학교의 10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초에는 유치원을 짓기 시작하여 4월 18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려운 곳의 지역개발을 위해 저희는 베트남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고, 학교가 있어야 배울 수 있고 그래야 장래에 소망과 꿈도 꿀수 있으며,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집이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며, 그래서 가족 모두가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되면 마을도 살고 지역도 살아나며 국가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저희 모두의 바램이기에 이일을 기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갈보리 공동체의 기도와 관심이 이 지역에 더 큰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소식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양, 한진숙 드림